



시비를 만나면 시비를 헤치고

월운 스님 (봉선사 조실)

“새로 시작 하자.”
선지식(善知識)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사람 사는 지혜라고 했다. 새해 새 아침에 만난 선지식, 월운(月雲) 봉선사 조실은 “날마다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종본찰(敎宗本刹) 봉선사 조실당에는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원래부터 있던 현판은 다경실(茶經室)이다.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유래한 이 말은 차를 마시며 경을 읽는다는 뜻이니 대강백(大講白)의 처소임을 알게 한다.
이 자리에는 원래 애월재(愛月齋)란 건물이 있었

으나 1978년 윤허 스님의 퇴로지처(退老之處)로 지은 것이다. 또 하나 근래에 걸린 현판은 ‘능엄대도량(能嚴大道場)’이다. 봉선사 능엄학림에서 손수 후학을 지도하는 선지식의 거처에 아주 합당한 이름이다. 조실당에 걸린 두 개의 현판은 한국불교의 역경 사업을 주도해 온 스승(윤허 스님)과 제자(월운 스님)의 원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노력 절실

“새로 시작 하자.”
선지식은 다시 말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라. 이대로 가서 무슨 발전

이 있겠는가? 발전이라 말한다 고 다 발전은 아니다. 모두가 뒤섞이고 왜곡되고 어지럽다. 무엇보다 지금 승(僧)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근거도 없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별별 것에 다 구색을 맞추고 산다.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해야 할 것만으로 승의 실림살이가 벽탄대 너무 범위가 넓다. 근거도 없이...”
현대사회, 도심으로 내려 온 불교는 아직 그 중심을 잡지 못했다. 인터넷 시대, 휴대폰 시대 신세대들의 특색 뒤는 감각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고 노력부족이다. 그런 가운데 불교는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는 커녕 온갖 의혹과 질타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선지식은 그 원인을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망적이지. 이제 내일도 레면 팔순의 나이를 맞을 나 같은 노인네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선지식은 절망을 말하면서도 눈이 빛났다. 절망 속에서 제대로 된 희망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강백이 절망을 말하는 것은 절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희망을 길어 올리고자 함이다. 새해 아침에 희망을 말하는 선지식의 어법(語法)이 절망일 뿐. 희망도 절망도 다 잊어버린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날 불교계가 바라보아야 할 양지(陽地)가 어디인가를 깨우쳐 주려는 간절함일 뿐.

역경불사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근간

“다시 시작해야 해.”
선지식은 또 되풀이 했다. ‘홍법강원(弘法講院)’을 다시 일으키려는 봉선사의 원력은 월초 스님과 운허 스님이 교종본찰로 다져두신 면모를 계승하고자 함이다. “내세에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던 윤허스님. 그 까닭은 “역경불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스승의 큰 원력을 이은 선지식은 사실 강원 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다. 2007년 10월 22일 저녁, 제주도 약천사 회주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수덕사 수좌 설정, 前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약천사 회주 혜인, 백양사 유나 지선, 해동선원장 태웅 스님 등이 둘러앉은 자리였다. 거기서 선지식은 이렇게 말했다.
“나 말이지요, 널 모르면 팔순이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좌중은 숙연했다) 그런데 이런 늙은이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도 세 가지나 되거든요. 들어 보실래요?(좌중은 더욱 수그러들었다) 첫째는, 부처님 신장님들이 신통을 좀 부러서 말이지요. 우리나라 저 잘 나가는 재벌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너희들 수입의 10%를 동국역경원 역경불사에 시주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좌중은 웃었지만 이내 숙연해졌다) 두 번째는 원고 하니, 열라대왕이 말이지요. 그 명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오면 하나하나 면접을 해가지고, 동국역경원 역경불사 후원금 낸 영수증을 보여주는 사람은 무조건 극락으로 보내는 겁니다.(다시 좌중은 웃었지만 금방 숙연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진짜배기입니다. 역경에 원력을 일으킨 사람을 한 20명 좀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공

부를 시켜서 역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공부 했는데 적어도 내가 공부한 것이나 전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제대로 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한 5년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못 숙연한 공기를 깨고 설정스님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20년은 더 사셔야지요.” 지선 스님이 이었다. “노장님의 원력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선지식의 원력은 개인의 것도 한 종단의 것도 아니다. 국가적인 것이다. 고려대장경이 외세의 침입을 극복하려는 국가적 발원에서 조판 되었다면, 오늘날의 역경불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법(傳法)의 범위는 한 종교로서의 불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우리 역사의 방향성을 아우르고 있다.

집중적인 경전 공부 시스템 필요

“지금처럼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공부시켜서도 안 돼.”
선지식은 이제 역경불사의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이 남아 있고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한 심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지금 조계종의 학제로는 공부를 제대로 한 승을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체계가 한문교육을 소홀히 하는 분위기에서 사회교육을 마친 사람이 승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짧은 행자 교육을 마치고 예비승이 되어 강원(승가대의 이력을 마치는 구조로는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적인 공부 필요하고 그를 위해 종단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승가대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지. 거기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춰진 커리큘럼이 있으



“
탐욕과 집착에 물들면
스스로 훌훌 털어 버리고
순수로 귀의하고
순수로 살피며 살아가야
”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고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육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중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육	35 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계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다계작법)	46 역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 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해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학장 해공 스님

친절한 은사님처럼 기도와 범패신도들의 교육을 잘 봐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입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제의식, 천도제,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겹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 과 정 : 2년(4학기)
- ◆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30분까지)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우 502-242)
- ◆ 학 장 : 해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관

(2008년 1월 9일 ~ 1월 12일 3박 4일)

-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경의,오후시간:실기교육위주)
- 1월 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육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야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1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깃소리늬늬),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1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흥의식하는 법, 부도 제작하는 법, 삼계기도하는 법
- 1월 1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육,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